



미래의 과학자를 키우는 사이언스 북 스타트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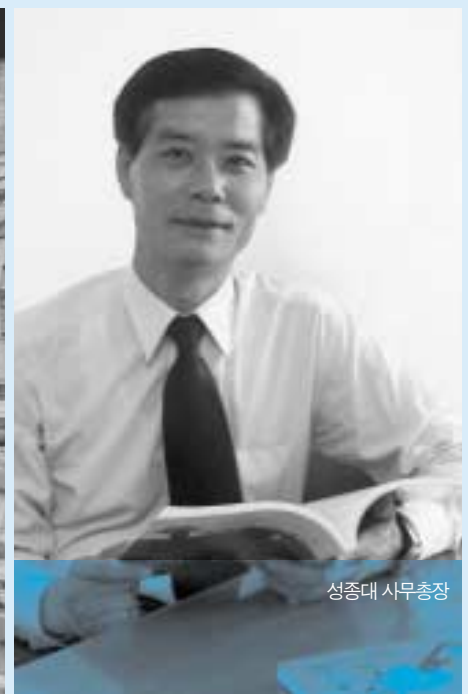
과학사랑나라사랑 성종대 사무총장

“과학사랑 회원님 안녕하세요? 책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과학책을 많이 읽고있어요. 저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내가 보내준 한 권의 책이 미래의 에디슨, 마리퀴리 그리고 훌륭한 벤처인을 키워낼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감동은 없을 것이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사이언스 북 스타트’ 운동은 전국 농어촌, 산간, 도서벽지의 어린 꿈나무들에게 과학책을 보내는 일이다.

예비과학자와 과학기술인의 만남. 사이언스 북 스타트 운동은 책 한 권으로 행복한 인연의 끈을 만들어가고 있다.



성종대 사무총장



사이언스 북 스타트 운동의 시작은? _ 오늘날 우리 과학기술계의 위기라고 까지 하는 이공계기피현상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초등학교에 과학책을 보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당시 과학기술부 김영환 장관이 과학기술계 원로분들과 함께 2001년 4월에 이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과학기술계가 발 벗고 나서 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더욱 의미가 있었다.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_ 가장 먼저 이 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준 분이 바로 김수환 추기경이다. 서울대교구장을 그만둔 후 다른 사회적 공적 직함을 일체 거부했던 김 추기경이 이 운동의 상임대표를 흔쾌히 맡아주어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이 운동의 추진체인 과학사랑나라사랑 조완규 이사장(前교육부장관)을 비롯한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우리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가의 위상을 드높인 황우석 교수도 출범부터 지금까지 참여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 대학의 이공계 교수들,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원들, 기업체 연구소 임직원들 등 약 3만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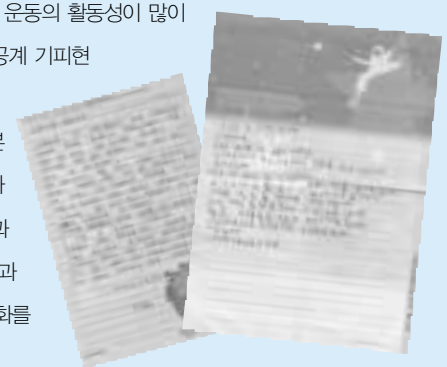
운동을 전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_ 이 운동을 통해 전국 농어촌지역, 산간, 도서 벽지 등에 소재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지난 3년여 간에 걸쳐 약 20만 권의 과학도서를 배포하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또한, 도서를 전달한 학교 중 10여 개 학교, 학생 약 600여 명을 대전에 있는 연구단지에 초청하여 1박2일간의 일정으로 과학캠프를 개최하고 현장학습을 한 것도 유익한 일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001년 12월 전국 113개 특수학교(장애인학교)에 과학도서를 전달하고 2002년 4월 전국 20여개의 시각장애인학교에 점자로 된 과학도서를 전달한 일이다. 2002년 10월, 노벨화학상을 받은 바 있는 미국 하버드대학의 허시바호 교수를 초청하여 농촌지역 2개 학교를 직접 방문하고 아이들에게 노벨과학상의 꿈을 심어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일 또한 결코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운동을 통해 도서를 받은 이들의 반응은? _ 도서를 전달한 이후 지금까지 해당학교 학생들이나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편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한결같이 너무나 고맙다는 인사를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선생님들이 한 권 한 권의 책마다 독서요령까지 달아서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것을 보면 다시 한 번 이 운동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된다.

운동에 참여하고 싶은 벤처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_ 협회 장흥순 회장, 변대규 부회장 등 이미 많은 벤처인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장 회장은 출범 때부터 이사로 참여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2002년 12월에는 과학기술부가 선정한 '올해의 테크노 CEO 상'을 수상하면서 받은 상금 1000만원 전액을 이 운동에 기증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벤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많은 과학기술인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더 많은 벤처인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길 바란다.

운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_ 아무래도 출범 3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는 초기보다 운동의 활동성이 많이 둔화되고 침체되는 조짐이 보인다.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많이들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관심의 강도가 약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도 더욱 아쉬운 형편이다. 과학기술계가 다시 한번 이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나설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안내 : 사이언스 북 스타트 운동 사무국
(02-521-3181~2, www.sbookstart.or.kr)



북 스타트 운동을 통해 책을 받은 어린이들이 보내온 감사의 편지